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대안)

의 안 번 호	5994

제안연월일: 2024. 11. .
제 안 자: 외교통일위원장

주 문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급습으로 격화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4만 4천 명 이상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10만명을 넘어섰다. 잔해에 묻혀 찾지 못한 실종자도 1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월 7일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 약 1,200명이 사망했으며, 현재 약 100명이 가자지구에 인질로 억류돼있다.

지난 1년 동안의 이스라엘 공습은 가자지구의 대부분을 파괴했다. 상업 시설 80%, 학교 건물 85%가 파괴되고, 36개 병원 중 17개 병원만이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와 구호품 반입 통제로 가자지구는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처해있으며, 가자지구 인구의 약 91%가 위기 수준의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에 따라 현재까지 레바논 전역에서 사망자 3,800명 이상, 부상자 15,000명 이상이 발생하였

고, 2024년 11월 26일에 레바논에서의 일시적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에 따라 무력충돌 중이라도 민간인은 보호되어야 하며, 민간인을 향한 공격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오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은 오랫동안 주변국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중동 지역의 불안과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7월 19일(현지시간) 1967년 이후 지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불법'이라고 판단하며,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을 가능한 빨리 중단하고,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완전한 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9월 18일 유엔 총회는 이와 관련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가 전례 없이 커지고, 인근 지역으로 무력 충돌이 확산되며, 중동지역의 긴장이 급격하게 점증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모든 적대행위와 무차별적인 공격을 중단하고, 양측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신속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이스라엘이 인도적 물자의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가자지구 내 억류된 인질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다수 결의에 따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점령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회부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1791	조계원의원	’24.7.17.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	4644	이재정의원	’24.10.11.

이상 2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2024. 11. 7)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27)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결의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2024. 11. 28)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결의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이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례없는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으며, 재앙 수준의 인도적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에 유엔의 여러 기구들은 ‘즉각 휴전’을 요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1월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와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요구하였습니다. 5월에도 ‘라파 공격 중단’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와 레바논까지 공습을 확대하며 중동 전역으로의 확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